



# 암 치료가 종료된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권혜진<sup>1)</sup> · 김윤정<sup>2)</sup> · 차혜경<sup>2)</sup>

1)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 Abstract =

## Relationship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to Depression in Child Cancer Survivors\*

Kwon, Hye Jin<sup>1)</sup> · Kim, Yoon Jung<sup>2)</sup> · Cha, Hye Gyeong<sup>2)</sup>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2)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valuate depression in child cancer survivors. **Methods:** The participants in this descriptive research were 103 adolesce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All of the adolescents were diagnosed as completely cured but remained under follow-up observation as outpatients. A structured questionnaire including the depression scale developed by Shin et al. (1991), a self-esteem scale developed by Rosenberg (1965) and a social support scale developed by Kim & Park (1999), Lee (1997)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Results:** The mean scores were, for self-esteem, 36.01, for paternal support, 57.21, for maternal support, 59.98, for peer support, 22.19, for teachers support, 21.07 and for depression, 27.95. Scores for depress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with appearances, diagnosis and prognosis. Depress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paternal support, maternal support, peer support, and teachers support. Variables affecting depression were peer support and self-esteem, accounting for 47.0% of the variance.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peer support and self-esteem, follow by maternal, paternal and teachers support, are important variables in the occurrence of depression in these adolescents. Further study is needed to develop strategies to increase this support and self-esteem.

**Key words :** Adolescent, Social support, Self-esteem, Depression

**주요어 :** 청소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우울

\* 이 논문은 2006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06 Chung-Ang University Research Grant.

교신저자 : 김윤정(E-mail: love5674@hanmail.net)

투고일: 2009년 3월 10일 심사완료일: 2009년 4월 17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Yoon Jung(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221 Heukseok-dong, Dongjak-gu, Seoul 156-756, Korea

Tel: 82-2-3010-5624 Fax: 82-2-3010-6843 E-mail: love5674@hanmail.net

## 서론

### 연구의 필요성

소아암을 진단받은 15세 미만의 소아는 2005년 1년에만 1128명에 이르렀다(Central Cancer Registry Center in Korea, 2008). 소아암환자는 전체 암환자의 1%에 불과하지만 소아암 생존자는 성인에 비해 생존기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이들의 질병과정과 치료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적 후기 합병증과 심리사회적 적응문제는 중요한 건강문제라 할 수 있다(You, 2005). 과거에는 소아암이 치명적인 질환이었으나, 오늘날은 치료방법과 보조요법의 발전과 개선으로 인하여 이 질환은 단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Kim et al., 2004).

소아암 생존 청소년들은 건강한 청소년들에 비해 질병에 대한 걱정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가족 결합력은 낮아지고 자존심, 통제력, 독립성은 상실하고, 심리사회적 적응, 자립심, 지적 기능, 사회화 등의 문제에 직면한다(Grant et al., 2006). 성인 생존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사회적, 교육적 문제는 학령기와 청소년기에 나타난 문제의 연장일 개연성이 크므로 소아암의 치료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사정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재를 함으로써 문제의 악화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Sim & Son, 2003).

청소년들은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고, 아동도 성인도 아닌 경계선상의 불확실한 위치에 있으며, 앞으로 대학진학과 직업선택 등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하는 등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일 개연성이 높은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우울증, 사회공포증, 약물남용, 비행 그리고 자살시도 등 정신 장애의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정신장애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Kim, 2007). 우울은 특히 청소년기에 빈발하는 증상 중의 하나이다. 청소년기는 변화가 많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격동의 시기이다. 결론적으로 청소년기는 발달과업이 많은데 비하여 인지적으로 미성숙한 시기이므로 이로 인한 심리적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Han, 1993; Kim & Kim, 2000).

우울을 일으키는 심리사회적 요인 중의 하나가 스트레스이다(Shin, 1999). 소아암 생존 청소년들은 소아암이라는 심각한 외상적 경험을 겪었으며, 치료가 종료된 후 변화와 적응문제에 더하여 학업, 대학입시 및 진로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추론된다(Grant et al., 2006; Lee, Santacroce, & Sadler, 2007; Madan-Swain et al., 2000).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소아암 생존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미흡한 실정이며, 치료 중인 암환아를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문제를 다룬 연구(Cho, 2001; Sim & Son, 2003)는 이루어졌으나, 소아암 치료가 종료된 생존자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소아암 환자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한 생존자들을 구별하지 않은 연구들이었으며, 과거에는 이들의 생존율이 낮았기 때문에, 소아암 치료가 종료된 생존자들만의 특성을 결과에 반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인암 생존자들은 종종 우울, 신체상 변화 그리고 성적 어려움이 있지만(Noh, 2003), Kim 등(2008)의 연구는 소아암 생존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일반 청소년들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소아암 치료가 종료된 생존자들의 우울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는 치료가 종료된 소아암 생존자 중 불안정한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국내의 소아암 생존자에 대한 연구는 소아암 초기 생존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고학년인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교생활 경험(Jin, 2000)과 백혈병 생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You, 2005), 치료 중인 암환아와 치료 종료 암환아의 사회심리적 적응(Sim & Son, 2003), 생존 청소년의 삶의 질(Kim et al., 2008) 등 주로 심리사회적 적응과 삶의 질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아암이라는 심각한 외상적 경험 이후 생존한 청소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우울을 파악하여, 예방하고 조기에 중재를 할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아암 생존 청소년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아암을 앓고 생존한 청소년의 우울 요인에 다양하게 접근함으로써 각 요인들이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선택하기 위하여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회적 지지요인과 자아존중감 요인을 연구주제로 선정하였다(Bai, 2006; Cho, 2001; Kim, 2007; Mun, 2008).

사회적 지지는 Sim (1998)의 연구에서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 관계로부터 얻는 긍정적인 자원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고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 증상을 적게 보이며,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여지며, 대표적인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원은 부모, 친구, 교사이다(Kim, 2007).

자아존중감은 부정적인 자기 해석과 청소년의 우울 정도 차이에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서로 중복된 부분이 크다(Kim, 2007; Lee, M. S., 2007). 또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다.

따라서 소아암 생존 청소년들의 우울에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점에 주목해 본 연구는 소아암 생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문제의 주요 증상인 우울, 생존 청소년의 우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는 자아존중감, 가족 관계나 또래 관계 등이 반영되는 사회적 지지를 분석하여 소아암 생존 청소년의 우울 문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즉 소아암 생존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우울의 수준을 알아보고, 생존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병원이나 학교에서 치료와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암 생존 청소년이 겪는 우울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소아암 생존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정도를 파악한다.
- 소아암 생존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소아암 생존 청소년의 우울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추출 된 S시에 위치한 일개 대학 병원에서 소아암 치료 종료 후 완치 판정을 받고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인 13~18세의 청소년으로, 최근 1년 동안 외래에 방문한 적이 있는 소아암 생존 청소년의 전수는 약 220명이었다. 이들에게 직접 또는 전화로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어 응답한 설문지는 105부로 회수율 48%이었으며, 이중 유효한 설문지는 103부(47%)이었다. 국외의 한 연구에서도 우편조사를 한 결과 회수율 51.1%(Lee et al., 2007)이었으며, 생존자들이 외래를 일 년에 1~2회 정도

방문하기 때문에 우편 조사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 연구 도구

### ●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아버지와 어머니, 교사, 친구 지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지지는 Kim과 Park (1999)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18문항으로 총 36문항이었다. 1점에서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지지가 많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지지 모두 Cronbach's  $\alpha = .9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지지 Cronbach's  $\alpha = .91$ , 어머니 지지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교사와 친구 지지는 Lee (1997)가 제작한 사회적 지지 척도 15문항 중 부모지지 5문항을 제외한 친구와 교사 지지 각각 5문항씩 총 10문항을 사용한 Lee, M. S. (2007)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문항은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와 교사 지지가 많음을 의미한다. 간호학 교수 1인과 소아암 전문 간호사 1인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Lee (1997)의 사회적 지지 척도의 Cronbach's  $\alpha = .81$ , Lee, M. S. (2007)의 교사 지지 Cronbach's  $\alpha = .81$ , 친구 지지 Cronbach's  $\alpha = .8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교사 지지 Cronbach's  $\alpha = .84$ , 친구 지지 Cronbach's  $\alpha = .95$ 로 나타났다.

###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Rosenberg (1965)의 도구를 Yoon (1999)이 번안하고 Lee, M. S. (2007)이 4점 척도로 수정한 10문항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부정문항은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간호학 교수 1인과 소아암 전문 간호사 1인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Lee, M. S. (2007)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 ● 우울

미국 정신보건연구원(NIMH)에서 개발한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Shin 등(1991)이 번역·수정하여 한국의 정상인 집단과 우울증 집단에게 적용하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인 한국어판 우울 측정도구(CES-D)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빈도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없었다.' 1점부터 '5~7번 있었다.' 4점까지 평정하게 되어

있고, 부정문항은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판 CES-D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 (Shin et al., 19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S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병원의 소아중양혈액 분과장의 동의를 얻고, 2007년 12월 10일부터 2008년 2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에는 자료가 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익명성 그리고 사생활 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대상자들인 청소년과 부모에게 서면 동의와 설문지를 우편으로 전달받았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력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소아암 생존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우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질병력에 따른 우울을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 분석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Scheff's test를 사용하였다.
- 소아암 생존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과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소아암 생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소아암 생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13~15세가 47명(45.6%), 16~18세가 56명(54.4%)이었으며, 남학생이 53명(51.5%), 여학생은 50명(48.5%)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65명(63.1%), 없는 경우 36명(35%), 무응답 2명(1.9%)이었으며, 가정의 월 평균 수입 정도는 100만원 이하가 11명(10.7%), 101~200만원은 20명(19.4%), 201~300만원은 21명(20.4%), 301~400만원은 21명(20.4%), 401만원 이상은 28명(27.2%)이었다. 소아암 치료가 종료된 후 현재 대부분의 대상자가 학교에 재학하고 있었으나, 재학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13명(12.7%)이었다. 자신의 성적이 중위권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43명(41.7%), 하위권은 34명(33.0%), 상위권은 20명(19.4%)이었으며,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는 44명(42.7%)이 보통이라고 여겼고, 41명(39.8%)은 만족, 18명(17.5%)은 불만족하였다. 형제서열은 둘째 이상이 56명(54.4%), 첫째가 40명(38.8%), 외동아들이나 딸인 경우가 7명(6.8%)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과거에 받았던 진단명은 혈액종양이 47명(45.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뇌종양이 27명(26.2%), 기타 고형종양이 22명(21.4%), 골육종이 7명(6.8%)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후유증이 없는 경우가 62명(60.2%)로 후유증이 있는 경우 41(39.8%)보다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03)

Characteristics	Category	n(%)
Age (years)	13~15 (middle school)	47(45.6)
	16~18 (high school)	56(54.4)
Gender	Male	53(51.5)
	Female	50(48.5)
Religion	Yes	65(63.1)
	No	36(35.0)
	Missing	2( 1.9)
Income (10,000won)	≤100	11(10.7)
	101~200	20(19.4)
	201~300	21(20.4)
	301~400	21(20.4)
	≥401	28(27.2)
	Missing	2( 1.9)
Education	Attend school	90(87.4)
	Others	13(12.7)
School record	Top ranking	20(19.4)
	Middle ranking	43(41.7)
	Low ranking	34(33.0)
	Missing	6( 5.8)
Appearance satisfaction	Satisfaction	41(39.8)
	Ordinary	44(42.7)
	Dissatisfaction	18(17.5)
Brothers order	First	40(38.8)
	≥Second	56(54.4)
	Only	7( 6.8)
Diagnosis	Hematologic malignancy	47(45.6)
	Brain tumor	27(26.2)
	Osteosarcoma	7( 6.8)
	Other solid tumors	22(21.4)
Late effects	Yes	41(39.8)
	No	62(60.2)

**소아암 생존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우울**

소아암 생존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우울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아버

지 지지가 57.21점(SD=9.67), 어머니 지지가 59.98점(SD=8.68)으로 총점 72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친구 지지는 22.19점(SD=5.36), 교사 지지는 21.07점(SD=5.23)으로 총점 30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역시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우울은 27.95점으로 총점 80점 기준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은 36.01점으로 총점 40점 기준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Table 2.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Depression of the Subjects (N=103)

Characteristics	M(SD)	Range
Father's support	57.21( 9.67)	31-72
Mother's support	59.98( 8.68)	27-72
Friend's support	22.19( 5.36)	5-30
Teacher's support	21.07( 5.23)	5-30
Depression	27.95( 5.75)	21-69
Self-esteem	36.01(10.51)	13-40

소아암 생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소아암 생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중 우울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Table 3과 같다. 우울은 대상자의 현재 학교성적(F=4.44, p= .014)과 외모 만족도(F=10.09, p= .001), 진단명(F=5.54, p= .001), 현재 후유증 유무(t=2.29, p= .02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에 따른 우울의 사후 분석결과, 하위권이 상위권보다 우울점수가 높았으며, 외모 만족도에 따른 사후 분석결과는 자신의 외모에 불만족한 경우가 만족하는 경우에 비해 우울점수가 높았다. 진단명에 따른 우울의 사후 분석결과, 뇌종양이 혈액종양보다 우울정도가 높았으며, 후유증 유무에 따른 평균 비교에서는 후유증이 있는 청소년이 후유증이 없는 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은 우울을 보였다.

소아암 생존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소아암 생존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 변인 간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우울은 자아존중감(r= -.58, p= .000)

Table 3.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03)

Characteristics	Category	Depression		
		M±SD	t / F	p scheffe
Age (years)	13~15 (middle school)	35.91±11.25	.08	.933
	16~18 (high school)	36.09± 9.94		
Gender	Male	35.21± 9.19	.78	.432
	Female	36.88±11.81		
Religion	Yes	37.17±11.02	1.37	.172
	No	34.11± 9.58		
Income (10,000won)	≤100 <sup>a</sup>	44.40±12.07	1.79	.137
	101~200 <sup>b</sup>	35.05±10.19		
	201~300 <sup>c</sup>	35.70± 9.07		
	301~400 <sup>d</sup>	35.45±12.38		
	≥401 <sup>e</sup>	34.68± 9.31		
Education	Attend school	35.72±10.57	.77	.440
	Others	38.25±10.68		
School record	Top ranking <sup>a</sup>	32.50± 7.69	4.44	.014 a<c
	Middle ranking <sup>b</sup>	34.81± 7.85		
	Low ranking <sup>c</sup>	40.47±13.85		
Appearance satisfaction	Satisfaction <sup>a</sup>	33.08± 8.83	10.09	.001 a,b<c
	Ordinary <sup>b</sup>	34.98± 8.77		
	Dissatisfaction <sup>c</sup>	45.41±13.17		
Brothers order	First	38.15±11.37	1.42	.246
	≥Second	34.44± 9.97		
	Only	36.14± 8.59		
Diagnosis	Hematologic malignancy <sup>a</sup>	32.72± 6.59	5.54	.001 a<b
	Brain tumor <sup>b</sup>	42.48±14.14		
	Osteosarcoma <sup>c</sup>	38.29±12.36		
	Other solid tumors <sup>d</sup>	34.90± 8.94		
Late effects	Yes	39.23±12.46	2.29	.025
	No	34.00± 8.59		

Table 4.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the Related Variables

(N=103)

	Self-esteem	Father's support	Mother's support	Teacher's support	Friend's support
	r( $\rho$ )	r( $\rho$ )	r( $\rho$ )	r( $\rho$ )	r( $\rho$ )
Depression	-.58	-.28	-.36	-.38	-.61
	(.000)	(.005)	(.000)	(.000)	(.000)

과 친구 지지( $r = -.61, p = .000$ )와 높은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 지지, 어머니 지지, 아버지 지지도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 = -.38, p = .000, r = -.36, p = .000, r = -.28, p = .005$ ). 따라서 생존 청소년들은 친구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우울을 설명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단계적 중회귀 분석을 사용하였고, 이를 위해 대상자의 심리적 변인인 자아존중감과 대상자가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중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교사 지지, 친구 지지를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이들 변인 간에  $r = -.62 \sim .72$ 의 상관관계를 보여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차 한계가  $.72 \sim .89$ 이었고, 분산팽창 요인도  $1.11 \sim 1.37$ 의 값을 나타내어 다중공선성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후 잔차분석을 위해 Durbin-Watson 검정을 실시한 결과, Durbin-Watson 값은 2.35로 오차항 간의 체계적인 상관성이 없었으며, 오차항의 정규 분포와 등분산성을 검증하여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암 생존 청소년의 우울을 설명하는 요인은 친구 지지와 자아존중감이고, 이들 변인은 우울의 47%를 설명하였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Depression (N=103)

Predictor variables	$\beta$	t( $\rho$ )	Adj. R <sup>2</sup>	Cum. R <sup>2</sup>
Friend's support	-.43	-4.93(.000)	.38	.38
Self-esteem	-.36	-4.09(.000)	.09	.47

## 논 의

소아암의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소아암 생존자, 특히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및 안녕과 건강에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아암 생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문제의 주요 증상 중 하나인 생존 청소년의 우울을 이해하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소아암 생존 청소년의 우울은 동일한 도구로 측정된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건강한 청소년에 비해 우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Lee, M. S., 2007), 정상 성인에 비해서는 우울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hin et al., 1991). Kim (2007)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우울 정도가 심각하다고 하였는데 반하여, 생존 청소년들의 우울 정도가 낮은 이유는 소아암 생존 청소년들이 소아암이

라는 과거의 질병경험으로 인하여 우울을 더 이상 경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암 생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동일한 도구로 측정된 Yoon (1999)과 Lee, M. S. (2007)의 건강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들은 건강한 청소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존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중 부모 지지는 동일한 도구로 측정된 Lee, M. S. (2007), Kim과 Park (1999)의 건강한 청소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부모 지지를 지각하고 있었으며, 친구 및 교사 지지는 Lee, M. S. (2007)과 Lee (1997)의 건강한 청소년에 비해 높은 친구와 교사 지지를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암 생존자가 대처를 잘 못하고, 친밀한 사람이 없으며, 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Grant et al., 2006)들과 자아개념, 우울, 자아존중감과 정체성의 문제(Lee et al., 2007; Madan-Swain et al., 2000)를 보고한 연구들을 보면 소아암 생존자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측면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생존자들이 건강한 대조군과 비교해서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Eiser, Hill, & Vance, 2000)는 연구가 있다. 이와 같이 국외 연구에서는 생존 청소년의 우울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청소년보다 오히려 낮은 우울 수준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긍정심리학의 접근에서 보면,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능력인 극복력으로 인하여, 다양한 외상과 충격에도 살아남아 스스로의 가치와 행복을 증진하도록 중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역경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해가는 개인들이 공통점으로 역경 속에서 이점을 발견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성숙한 사회적 적응을 성취하며, 삶의 의미를 되찾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o, 1999; Lee, H. R., 2007; Lee & Sohn, 2000). 특히 You (2005)의 연구에서도 백혈병 생존 청소년들이 그 힘든 치료과정을 이기고 살아남기 때문에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삶에 대한 가치와 우선순위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삶의 의미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등 긍정적 변화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소아암 생존 청소년들은 암이라는 힘든 역경과정을 거치면서 이점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와 일상생활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을 깨달으며 긍정적 사고를 하게 되어 건강한 청소년들보다 오히려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Kim 등(2008)의 연구에서도 소아암 생존 청소년의 삶의 질이 건강한 청소년과 비슷하다는 결과와 함께 볼 때, 소아암 생존자들이 치료가 끝난 후 일반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암이라는 것은 실제적 건강상태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암을 경험하고 난 후 삶의 의미를 재인식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생존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추후관찰을 통하여 우울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중재가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소아암 생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중 학교 성적, 외모만족도, 진단명, 후유증 유무에 따라 우울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ee, M. S. (2007)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우울이 학교성적과 외모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아암 생존 청소년들도 건강한 청소년들과 비슷하게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생존 청소년의 우울은 성별 차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선행연구(Bai, 2006; Kim, 2007; Mun, 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생존 청소년 우울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성차보다는 청소년의 발달적 특징에 근거한 다른 변인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의의가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Mun, 2008). 이렇듯 소아암 생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이 일반청소년과 비슷하다는 것은, 생존 청소년들은 과거에 앓았던 암이라는 질병경험 보다는 그들의 발달적 특징에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리고, 과거 진단명에서 혈액종양이 뇌종양보다 우울 수준이 낮은 것은 Speechley, Barrera, Shaw, Morrison과 Maunsell (2006)의 연구에서 심리사회적 기능에서의 차이를 보인 그룹은 뇌종양이라고 한 결과와 Kim 등(2008)의 연구에서 혈액종양이 뇌종양보다 삶의 질 점수가 높은 결과와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뇌종양을 치료받고 생존한 청소년의 우울수준이 높을 수 있으므로, 이들 진단명을 가진 청소년을 위한 심리사회적 간호중재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또한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우울이 후유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높았다. 이는 후유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선행연구(Kim et al., 2008) 결과와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존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아암 생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친구 지지가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자아존중감과 함께 47.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ai (2006)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친구의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

을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Mun, 2008; Shin, 1999)의 결과와 비슷하다. 이 연구 결과 소아암 생존 청소년들은 암이라는 힘든 역경과정을 이겨내고 완치되었으므로 자신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평가로 자아존중감 보다는 과거의 질병으로 인하여 친구 관계가 취약하였고, 청소년의 특성상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친구 지지가 우울에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Cho (2001)의 연구에서 암환아에 있어서 친구 지지 지각만이 우울 예측변인으로 나타났고, 일반아에 있어서는 가족, 친구, 교사 지지 모두가 우울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 중 친구 지지와 교사 지지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Mun, 2008)와 오히려 가족 지지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Kim, 2007)들이 있어 일반 청소년의 우울은 가족, 친구, 교사 지지 모두가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소아암을 앓고 있거나, 치료가 종료된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적 지지 중 친구 지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아암을 앓고 있거나 치료가 종료된 청소년들은 학업의 변화로 인하여 친구관계가 멀어질 수 있으므로, 건강한 청소년들보다 친구 지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Bai, 2006; Kim, 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 지각이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낮다는 결과도 선행연구(Cho, 2001; Kim, 2007)의 결과와 일치한다.

소아암 생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설명력으로 크게 작용한 부분이 친구 지지와 자아존중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차적으로 친구 지지를 높여주어야 한다. 친구 지지를 높여주기 위하여 진단 시부터 친구관계와 학업계획에 대한 관심과 중재가 이루어져야 하며, 치료 중 학업을 지속하며 친구들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의 학교로의 복귀는 중요하면서도 아동, 부모, 또래들, 선생님들에게는 하나의 도전이기에 다학제간 팀, 학교와 병원간 의사소통을 통해 환아가 학업 성취를 획득하고 친구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애정적으로 지각될 때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이 발달할 수 있다(Mun, 2008). 그러므로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현실적이며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으며 격려나 칭찬을 아끼지 않을 때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Mun, 2008). 그리고 부모의 훌륭한 양육만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타인으로서 강력한 영

향을 주는 또래의 청소년들과의 관계형성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친구들과의 동일시와 집단에 대한 소속감에 관한 열망이 강하므로, 이를 통하여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키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소아암 생존 청소년의 우울정도는 건강한 청소년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생존 청소년의 우울은 건강한 청소년들과 같이 단일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기보다는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특히 친구 지지와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특히 친구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설명의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 친구 지지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소아암 생존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족, 친구환경에서 자아정체감을 회복시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사회적 지지 중 친구 지지 관계망을 특히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아암을 치료받고 생존한 청소년의 우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는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또래 관계 등이 반영되는 사회적 지지를 연구하여 소아암 생존 청소년의 우울 문제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소아암 생존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우울의 수준을 알아보고, 생존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병원이나 학교에서 치료와 예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서술적 조사연구로, S시에 위치하는 일개 대학 병원에서 소아암 치료종료 후 완치 판정을 받고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인 13~18세의 청소년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10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로 이루어진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에 의해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아암 생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36.01점, 아버지 지지는 57.21점, 어머니 지지 59.98점, 친구 지지 22.19점, 교사 지지 21.07점이었으며, 우울은 27.95점이었다.

둘째, 소아암 생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중 학교성적과 외모 만족도, 진단명, 후유증 유무에 따라 우울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아암 생존 청소년의 우울과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친구 지지, 교사 지지 등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과는 부정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째, 소아암 생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친구 지지가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자아존중감과 함께 47.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치료가 종료된 청소년은 과거에 암이라는 질병을 앓았지만, 과거 질병에 대한 부정적 영향보다는 그 힘든 치료과정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감사함과 소중함으로 우울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후관찰로 소아암과 같은 심각한 외상적 경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여 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학교, 병원 그리고 가정에서의 체계적인 상담전략이 필요하다. 즉 생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형성과 관련한 친구관계망을 강화시키기 위한 통합적이고 실제적인 접근이 요구되어진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본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가 보고에만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생존 청소년의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 본 연구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수가 적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다수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 소아암 생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Bai, J. S. (2006). *The effect of stres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with the youth of the rural and fishing area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 Central Cancer Registry Center in Korea. (2008). *Annual Report of the Central Cancer Registry in Korea*.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 Cho, Y. J. (2001). *The relationships of social support perception, anxiety,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cancer child and non-cancer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Eiser, C., Hill, J. J., & Vance, Y. H. (2000). Examining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 of surviving childhood cancer: systemic review as a research method in pediatric psychology.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5(6), 449-460.
- Grant, J., Cranston, A., Horsman, J., Furlong, W., Barr, N., Findlay, S., et al. (2006). Health statu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adolescent survivors of cancer in childhood.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8, 504-510.
- Han, Y. G. (1993). *Children's and adolescents' depression, attributional style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 Jin, J. H. (2000). *School reentry experience of childhood*



- cancer early surviva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M. A. (2007).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Kyungsan.
- Kim, M. Y., Kwon, I. S., Kim, S. O., Kim, E. K., Kim, T. I., Moon, J. H., et al. (2004). *Pediatric nursing*. Seoul: Soomoonsa.
- Kim, O. S., & Kim, K. H. (2000). Weight,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high school and college femal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2(3), 396-405.
- Kim, U. K., & Park, Y. S. (1999).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pattern of Korean adolescents: With specific focus on the influence of friends, family, and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3(1), 99-142.
- Kim, Y. J., Cha, H. G., Kim, C. A., Park, Y. J., Kim, H. J., Seo, J. J., et al. (2008). Child cancer survivors' quality of life based on their parents' support and past history.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7(1), 85-96.
- Ko, K. J. (1999). A phenomenological study on hardness of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1(1), 5-11.
- Lee, H. J., & Sohn, S. K. (2000). Predictive factors of hope in patients with canc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2(2), 184-195.
- Lee, H. R. (2007). *Adversity and adaptation of adolescents: The role of resil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Lee, K. J. (1997). *Stress, social support, and behavior problems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 Lee, M. S. (2007). *The factors affecting adolescent life qua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Seoul.
- Lee, Y. L., Santacroce, S. J., & Sadler, L. (2007) Predictors of healthy behaviour in long-term survivors of childhood cancer.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6(11C), 285-295.
- Madan-Swain, A., Brown, R. T., Foster, M. A., Vega, R., Byars, K., Rodenberger, W., et al. (2000). Identity in adolescent survivors of childhood cancer.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5(2), 105-115.
- Mun, S. W. (2008). *The effects of perceived stress, social-support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of middle-school students-Seoul, Cheonnam reg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Noh, Y. H. (2003). *Breast cancer survivor's conquest exper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NJ: Princeton Press.
- Shin, J. E. (1999). *A study on the psychosocial factors affecting of adolescent's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 University, Seoul.
- Shin, S. C., Kim, M. K., Yun, K. S., Kim, J. H., Lee, M. S., Moon, S. J., et al. (1991).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CES-D): Its use in Korea-standardization and factor structure of CES-D.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0(4), 752-767.
- Sim, H. O. (1998). Depression among late-elementary children: Relationships with daily hassles, self-esteem, & social skill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 Association*, 36(6), 137-141.
- Sim, M. K., & Son, S. Y. (2003).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psycho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with cancer between on and off treat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9(1), 85-95.
- Speechley, K. N., Barrera, M., Shaw, A. K., Morrison, H. I., & Maunsell, E. (2006).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child and adolescent survivors of childhood cancer.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24(16), 2536-2543.
- Yoon, M. S. (199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You, M. A. (2005).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 survivors of leukemi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